우리아이 지킴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문의 T. 02 - 775 - 5542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선 플 신 문

국내최초 클라우드영어 탄생!
민병철유폰2.0공식론칭
www.uphone.co.kr

제 2 호 2014년 12월 29일 (월)
밝은 사회를 위한 좋은 언어 사용 문화를 만드는 신문 안내 : (02) 535-3449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토론회

김희범 1차관 "세대간의 대화와 건설적 토론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언어문화개선운동의 현황과 발전방안으로 더 나은 언어문화 기대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문화융성위원회는 11월 27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김희범 차관을 비롯하여 국립국어원장, 국립한글박물관장,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및 단체, 일반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소강춘 국어문화원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글날을 새로 지정하면서 여러 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데 모아서 우리 말과 글의 생활이 아름답고 바람직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아름답고 품격있는 언어생활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새로 만들어진 한글박물관에서 이루어져 더욱 뜻 깊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들여다보고 왜 그런 언어가 유통되는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세대간에 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적인 토론회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언어문화개선운동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안-더 나은 언어문화를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국어단체, 학계, 방송·신문, 공공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연합 출범 1년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앞으로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추진방향을 토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슬옹 한글학회 연구위원이 언어문화개선운동 2014년도 주요 추진사례에 대하여 보고하고, 권재일 서울대 교수의 '우리말과 우리 얼, 그리고 언어문화'에 대하여 기조발표에 이어 손수호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이 '공공언어, 이대로 좋은가', 김용식 MBC성우가 '방송,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언어문화 영향', 한민환 영동 환간초 교사가 '청소년과 언어문화 현실'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2부 순서로 김수업 대구가톨릭대 전총장이 '국민통합을 끌어내기 위한 바른 언어문화의 방향'을, 김영선 방송통신심의위 차장이 '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한 방송의 역할'을, 김정선 한양대 교수가 '청소년의 바른 우리말 생활'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어 강정희 한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2015년도 범국민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어문화 개선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운동이 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민 스스로 연합하여 그간 활동한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향후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만들어 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운동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녕! 우리말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누리집(http://urimal.kr)에서 좀 더 많은 언어문화 활동 정보와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조응태 기자

언어문화개선을 위하여 범국민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

민병철 교수, 중국 베이징 어언대학교 선플 특강

선플운동본부, 중국에서 '한류 3.0 시대' 견인 눈길 끌어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지난 11월 2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주최하고 중국 최대의 뉴스포탈 인민일보 인민망 주관으로 '베이징(北京) 어언대학교'에서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플운동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베이징 어언대학교 선플 특강'은 민병철 교수가 지난 6월 '인민망 TV'를 통해 중국 네티즌들에게 선플운동을 소개한 이후, 중국 전역의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10대 선플 선발대회'가 개최되는 등 선플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국 유명 대학들의 강연 요청이 이어져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선플운동본부는 쓰촨성 대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올린 추모의 댓글을 모아 제작한 '선플 추모집'을 올해 1월 17일 북경에서 '중국 CCTV'에 전달하고, '청소년 문화센터 재건 기금'을 쓰촨성 아안시에 전달한 바 있으며, 2월 6일에는 '소치동계올림픽 한중 선플사이버응원단'을 출범시켜 양국 출전선수들을 상호 응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선플문화가 중국 청년들에게 확산되어 평화로운 지구촌 만들기에도 기여하고,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여 한중 민간친선 우의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민망 한국지국 저우위보 대표는 "중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국 네티즌들의 추모와 위로의 선플은 큰 위안이 되었다. 한류 3.0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선플운동이 중국에 확산되어 양국이 선플을 통해 더욱 좋은 이웃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도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이 개설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 홈페이지'를 통해 8만 여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추모의 뜻을 전해왔으며, 선플운동본부에서는 한중 청년들이 상호 국가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나 사건을 홍보하고 선플 달기를 하는 '한중청년선플사이버공공외교단(단장 김경탁)을 발족하였고, 중국 손수레 효녀 씨에슈화씨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병철 이사장이 중국 '베이징(北京) 어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플운동 특강을 진행했다. (선플운동본부)

선플운동은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 욕설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악플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알게 하고, 또 선플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 목적이다. 2007년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어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에게 선플달기 과제를 내어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 6천여 개의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선플운동을 도입한 울산교육청의 경우 선플운동 참여 이후 학교폭력이 64% 감소하는 등 청소년 언어문화개선 인성교육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조응태 기자

인터넷 환경과 청소년 사이버 언어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 논문을 살펴보다

1. 한국의 인터넷 환경

1.1 한국의 인터넷 환경 급성장

'온라인 참여지수' 세계 1위,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

한국에서는 1994년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 초고속 통신망과 고성능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2014년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 세계 1위,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 정부정책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온라인 참여지수' 세계 1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터넷 이용자 현황에서도 2013년 12월 기준 만 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82.1%, 이용자 수는 4,008만 명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특히, 99% 이상의 초·중·고·대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98% 이상의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동전화 보급률이 99.7%(만 12세 이상, 2013년 5월 기준)에 달하며 그 중 스마트폰 보급률은 95.5%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탈에서 제공하는 카페와 블로그, 미니홈피,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등은 네티즌들이 서로 소통하는 인터넷을 통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 증명서 발급, 온라인 상거래의 발달, 인터넷 동호회 활성화 등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졌고, 우리 주위의 물건들이 서로 교신하며 스스로 주변 상황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알아서 일을 처리해주는 사물인터넷(IoT)은 가전제품,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원격검침,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인터넷을 기반을 둔 초연결(Hyper-connection) 사회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1.2 인터넷의 역기능

하이퍼링크 형태의 인터넷은 복잡다단한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화적 현상 또한 복잡하다. 순기능적 요소는 물론 역기능 현상 또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 언어파괴, 악성댓글,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침해, 사기, 해킹 등의 역기능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역기능 현상은 급격한 정보화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인기 연예인을 둘러싼 괴소문과 유언비어 재생산, 정보 과잉에 의한 카더라식 통신, 광우병에서 비롯된 괴담 수준의 악의적 게시글과 동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사회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켰다. 특히, 악성댓글은 가히 테러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역기능 현상은 포털의 과보호에서 비롯된 경향이 있다. 양적으로는 과거보다 몇 십 배 성장했지만, 올바른 인터넷 문화 환경조성에는 미진하여 네티즌을 그대로 방치해 왔다. 포털의 이러한 방치로 인하여 네티즌들은 단순한 소동을 넘어 집단적 테러리즘의 위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악성댓글(악플)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악성 댓글로 인한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 사이버 언어 파괴

2.1 언어 파괴 사례

<그림 참조>

2.2 언어 파괴의 특징과 문제점

2.2.1 언어 파괴의 특징

언어파괴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컴퓨터 통신의 여러 형태 중, 대화(채팅)방과 홈페이지 게시판 그리고 전자편지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서 나타나는 통신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과 어휘적 특성이 평소 사용하는 일상 언어와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어휘가 탈락(설 - 서울, 겜 - 게임, 셤 - 시험)되거나, 축약(드뎌 - 드디어, 토욜 - 토요일) 되기도 하고, 맞춤법에 상관없이 발음대로 적는 (무러봐도 - 물어봐도, 마자마자 - 맞아맞아, 20000 - 이만, 10C미 - 열심, RG - 알지)다거나, 신조어/합성어(하이루 - 인사, 리하이 - 대화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인사, 강추 - 강력 추천, 강제추방)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 이모티콘(^^ - 웃는 얼굴, ㅠ.ㅠ - 우는 얼굴, OTL - 좌절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이용하거나, 외계어(ㄴㅓ집ⓔya? - 너 집이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2.2.2 언어 파괴의 문제점

언어 파괴의 문제점은 내용상의 문제로 언어 사용에 대한 특별한 검열 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욕설'이나 '음란한 발언', '비속한 표현'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형식상의 문제는 일상어의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무시되며, 네티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언어 파괴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일으키고 세대 간 의사소통의 장애가 생겨 괴리감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맞춤법의 혼란 및 문법 파괴로 올바른 언어사용에 혼돈을 유발한다.

2.3 해결방안

언어 파괴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한 방안에는 기술적 방법, 교육적 방법, 법적·윤리적 방법 등이 있다.

2.3.1 기술적 방법

기술적 방법은 언어 파괴 현상을 웹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방법이다. 통신언어에서 욕설이나 음란한 발언, 비속한 표현 등을 사용하면 경고문을 사용하거나 다른 말로 자동 번역하고 타인에 의해 신고기능을 설치하여 나타나게 할 수 있다.

2.3.2 교육적 방법

교육적 대처방법으로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통하여 표준어법의 언어를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 이외에 통신 언어와 표준어법을 비교하는 지도적 방법이다. 또한 컴퓨터 교육 초기 단계에서 바른 문장을 통한 자판 익히기를 중점 지도해야 한다. 기계 조작법 위주의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통신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바른 언어 사용도 중점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2.3.3 법적·윤리적 방법

언어 파괴 현상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윤리적 의식 강화의 방법이 있다. 인터넷의 심각한 언어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가정과 시민 사회 영역에서의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3. 사이버 언어폭력 (악플)

3.1 악플의 정의

악플은 게시물에 대한 근거 없는 감정적 비난을 격화된 언어로 표현한 인터넷상의 답글을 의미하며, 직접적 악플 (욕설과 폭언, 모욕이나 비난)과 간접적 악플(조소나 비꼼, 냉소, 유언비어, 신상 털기) 등 부정적 감정의 언어표현으로 나타난다.

3.2 악플의 현황

익명성을 띈 악플은 소리 없는 총으로, 이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더욱이, 대중에 사생활이 공개되기 쉽고 또한 명예와 인격적 존중을 생명으로 여기는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근거 없는 악플은 더욱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잘 알려진 예로 2007년에는 젊은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고, 단기간에 몸무게를 감량한 어느 여고생이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지나친 악플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008년에 들어와서도 식물인간의 상태로 8년간 투병중인 야구선수에 대해서 악플이 달렸고 심지어는 유괴된 어린이에게까지 악플이 달렸다.

또한 국민배우로 일컬어지던 여배우의 자살을 포함하여 2008년 9월 이후 악플로 인해 고통 받던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에는 트위터를 통해 확산된 악플에 괴로워하던 모 아나운서의 자살을 두고 'SNS에 의한 타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루머와 악플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서울의 모 학교에서 여학생이 카톡 왕따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등 SNS상의 청소년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3.3 악플의 원인

3.3.1 인터넷의 익명성

국정홍보처(2005)의 설문 조사 결과, 사이버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인터넷의 익명성(43.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은 이용자의 의식부족(21.5%)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인터넷 상에 나타난 단순한 공격대상으로만 간주하여, 즉흥적 감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3.3.2 출산율 하락과 폭력물 범람

출산율 하락 (출산율 세계 최저)으로 인한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의 결여도 악플 양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게임 산업의 발달과 폭력 영상물에 기인한 악플러가 양산되고 있다.

게임 산업의 발달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임에 빠져드는 경우가 일반화 되고 있고 대부분의 게임은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먼 폭력, 살인 등과 같은 말초신경을 극도로 자극하는 내용 위주로 짜여 있다. 이로 인해 게임에 빠져든 청소년들이 순간적 공격성에 길들여지고,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불건전한 인터넷 정보를 무분별하게 접하게 된 청소년들이 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려 인터넷에 노출되는 인물에 대한 배려보다는 감정을 누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악플을 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휴대폰을 포함한 온라인 폭력과 최근 지구촌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총기와 칼 등의 흉기가 동반된 '묻지마 살인'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3.3.3 인성교육의 부재

경쟁적 사회 분위기는 가정, 학교에서의 인성교육보다 입시와 취업을 위한 지식 습득만을 강조하게 되었고,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정신적 성숙이 덜 된 생각 없는 비방과 욕설이 악플로 표출되고 있다.

3.4 선플운동을 통한 인성교육

인터넷의 역기능인 인터넷 폭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인터넷 윤리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인터넷 윤리수준을 제고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옛말이 있듯이 인성교육은 어릴수록 효과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하면 만 3세~5세 어린이들의 61.8%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처음 접할 때부터 선플달기를 통한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여, 인성교육의 최적기인 초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선플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았으나, 안전벨트 미착용자들에게 벌점 부과 등의 제도적인 장치와 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캠페인을 통해서, 요즘은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매듯이, 악플을 대처하는 방안으로도 제도, 기술적인 장치와 선플달기 캠페인을 조화롭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응한 선플운동

4.1 선플달기 과제를 수행하던 학생들의 변화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 강국이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과 비방, 사이버폭력 등의 인터넷 역기능 현상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지하철 개똥녀 사건' 이후 게시판의 댓글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 사건들은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적 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에 의한 국민배우의 자살사건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선플운동이 처음 시작된 계기도 그러한 사회적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2007년 초, 한 젊은 여가수가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는 보도를 접한 후 큰 충격을 받고, 그 해 봄 학기 나의 영어 수업을 듣는 570명의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였다. 각자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10명의 유명인들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방문해서 악플을 자세히 읽어 본 다음, 해당 연예인들에게 근거 없는 악플을 달지 말아야 할 이유와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선플을 달아준 후, 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제였다.

그 결과 악플이 달린 연예인들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는 순식간에 5,700개의 아름다운 선플이 달리게 되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근거 없는 주변의 소문과 글들로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힘내세요', '열정적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마세요', '악플을 단 경험이 있는데 이 과제를 통해 이제부터는 악플을 달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는 등의 선플을 달았다. 민 교수는 학생들이 단순 과제로 내주었던 선플을 실제로 본인들이 쓰며 학생들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 큰 영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에서 선플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 그림 〉

"너 어제 엄청 깨졌다며? 지못미."
"ㄴㄴ(니은니은)."
"어제 뉴스 봤어? 쩔더라."
"레알 넘사벽을 실감했지."

인터넷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생소한 단어들이 눈에 띄지만, 이 대화가 이루어진 곳은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실이다.

'지못미'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의 줄임말이고 'ㄴㄴ'은 'NoNo'의 줄임말이다. '쩐다'는 '완전히 좋다', '레알'은 'real을 철자대로 읽은 말', '넘사벽'은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을 말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소위 통신상에서 새로 생긴 외계어들이다.

초등학교 3학년을 지도하고 있는 이지현씨(가명·38·여)는 "아이들의 일기장을 '해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언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그린투데이 2010.5.28., 정책기자 강윤지 –

4.2 '선플운동'의 뿌리는 추임새운동

선플운동은 남의 말과 글에 선플을 달아주면, 선플을 받는 사람과 선플을 다는 사람 모두 행복해 지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더욱 행복해지는', 또 '잘되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대신 잘되는 사람이 더욱 잘되도록 돕는 '인터넷 정신문화운동'으로 2005년 내가 최초로 창안한 '추임새정신 문화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추임새'란 국악에서 창자(singer) 에게 용기를 주고 흥을 북돋우기 위해 고수(drummer) 가 '얼쑤', '좋다', 라는 말을 노래 중간 중간에 넣어주는 말을 뜻한다. 추임새 운동이란, 한마디로 잘되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대신 더욱 잘되도록 돕자는 정신문화운동이다. 선플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된 운동으로 추임새 운동이 off-line 운동이라면, 선플은 on-line을 통한 추임새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4.3 선플운동의 효과

4.3.1 선플운동은 사이버 시대의 새로운 정신문화운동

선플운동은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 욕설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악플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알게 하고, 또 선플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 목적이다.

선플의 모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1) '진실만을' 말한다, 2)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한다 이며, 이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3)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말로 함축된다.

선플운동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운동인 동시에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통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사이버 시대의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이다.

선플의 영어 표기인 'sunfull'은 full of sunshine 을 의미하며, '햇살이 가득한 사이버 세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상징 꽃은 해바라기(sunflower)이다.

인터넷 상에 악플이 한참 올라가다가도, 선플이 달리게 되면,

가.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키면서, '그래요', '그렇군요'라는 반응들이 나오게 되고, 악플 일색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된다.

나. 악플 숫자가 급격히 떨어진다.

다. 선플은 감정적으로 상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네티즌들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을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해 준다.

라. 이로 인해 악플이 주도하는 댓글 문화를 건전한 토론문화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

4.3.2 선플달기 참여 방법

선플운동 참여 학교에서는 학교홈페이지에 선플배너를 설치하고, 선플 담당 지도교사를 정하여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의 [선플누리단] 메뉴에서 [학교등록(교사용)]을 하면, 학교 선플 지도교사에게 해당 학교학생들의 선플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가 제공된다.

학생들은 1)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SNS의 글을 읽고 2) 근거없는 비방의 댓글에 한하여 잘못된 이유와 자신의 의견을 정성껏 담아서 선플을 단다. (초등학생 40자 이상, 중학생 50자 이상, 고등학생 60자 이상, 편지글(URL 없는 경우) 100자 이상) 3)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내용을 '선플본부'사이트 선플게시판에 복사하여 넣는다. 학생들이 단 선플은 지도교사의 검토를 거쳐 정해진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자원봉사시간이 인정된다. 확인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선플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선플달기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건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익힐 수 있다.

4.3.3 청소년들에게 언어 순화와 학교폭력 예방 효과

2012년 하반기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 선플운동을 도입했던 울산교육청에서는 언어폭력 피해율이 선플달기운동을 시작하기 前 1차 조사 시('12년 2월) 40.7%에서 선플달기운동을 한 이후 '12. 10월에는 5.6%, '13. 4월에는 2.0%로 감소되었으며, 선플달기 실시 이후 신체폭행 발생건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선플운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경찰서와 공동으로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방문한 1,408명 (남625,여783)의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선플달기가 본인의 언어순화와 학교폭력 감소에 도움이 되었고, 선플달기 경험횟수가 많을수록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아 선플달기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1년 선플달기에 참여한 학생 1,081명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표본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5%) 선플달기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비속어 사용이 감소하고 논술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2008년에 선플운동 참가자 644명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선플활동을 하기 전 악플을 달아본 적이 있는 학생은 25.2%였고, 선플활동을 한 후 악플을 쓰는 학생은 3.1%로 악플을 쓰는 학생이 크게 감소하여 선플활동이 인터넷 상의 건전한 언어습관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주요 선플 활동 소개

5.1 국내 선플활동

2007년 5월 23일 선플운동본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의 학교와 단체에서 "선플만을 달겠다는 선플선언식"과 '강연'을 진행해왔으며, 2009년 11월 6일 선플의 날 (매년 11월 첫째 금요일)에는 전국 844개 학교 및 단체에서 304,761명이 참가 신청을 하여 선플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고, 2010년 5월에는 민간단체에서 시작된 인터넷문화운동인 선플운동이 안전행정부의 참여로 추동력을 얻게 되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도권(서울), 강원권(춘천), 호남권(전주), 제주권(제주), 충청권(대전), 영남권(부산)에서 1만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선플달기 전국 릴레이 캠페인'이 개최 되었다. 2010년 12월 14일, 선플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플이 100만개를 돌파하였으며, 2014년 12월 15일 현재 선플 580만개를 돌파하였다.

또한, 2014년 5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출범식 및 선플음악회'를 개최하여,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하여 전국으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선플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현재, 수많은 학교 및 학부모, 기업체 및 단체, 육해공군 전군, 지자체 및 기관, 국회 등이 속속 참여 중이다.

5.2 국제 선플활동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쓰촨성 대지진 발생 당시 '쓰촨성 대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추모와 위로의 선플 달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또다시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 당시 추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추모와 위로의 선플을 올리게 되었다. 이때 올라온 1만여 개의 선플이 모여 '선플추모집'으로 제작되어 CCTV에 전달(2014.1.17)되었고, '쓰촨성 대지진 피해주민들을 위한 추모음악회'(2013.9.30, 라움아트센터)를 통해 조성된 쓰촨성 야안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기금이 중국 야안시 마호후이 부시장에게 전달(2014.1.17, 중국 북경 캠핀스키호텔)되었다. 이후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중선수단을 상호 응원하는 캠페인 (2014.2.6.~2.23)이 인터넷상에서 진행되었으며, 2014년 4월 16일, 한국 진도앞바다에서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중국 네티즌 8만여명 (2014년 7월 현재)이 인민일보 인민망에 개설한 세월호 추모 사이트 (http://korea.people.com.cn/205163/209647/index.html)를 통해 추모의 뜻을 보내왔다.

또한 2014년 6월 24일, 인민망tv에서 선플강연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8만여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방송을 들었고, 웨이보를 통해 그 네티즌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의 기회를 가졌고, 11월 27일에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초청으로 북경어언대학교에서 선플강연 개최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쓰나미 발생 당시에도 한국의 네티즌들이 추모와 위로의 선플달기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012년 12월 14일 미국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의 선플달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올라온 선플 5,000여개를 모아 선플추모집으로 제작하여 주한미국 성김 대사에게 전달했다.

6. 결 론

선플운동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청소년 인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인터넷은 인류 제1의 의사소통 매체가 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한 비판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근거없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악플들은 막상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경우에 따라 생명까지도 내던지게 만든다.

한국인들에게는 월드컵 때 온 국민이 하나 된 '응원 문화'와 IMF 경제위기 때 보여준 금모으기와 같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배려 문화'와 같이 한국인 특유의 '격려와 배려의 DNA'가 한국인의 몸 속에 내재되어 있다. 선플운동은 이러한 격려와 배려의 DNA를 복원시키는 운동이며, 전 세계인이 참여 함께할 수 있는 신 정신문화운동이다.

특히 선플운동은 인성교육의 최적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선플교육을 통해 칭찬과 격려의 선플운동에 적극 참여케 하여 인터넷 상의 올바른 토론문화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선플은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선플을 달아주는 사람이 더욱 행복해진다. 지구촌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 선플운동에 동참하여 개인, 단체, 지역사회, 국가 간의 갈라진 마음을 화합시키고 지구촌의 분쟁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인터넷 평화운동인 선플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는 www.sunfull.or.kr (영문 선플홈페이지 www.sun-full.org), 연락처는 82-2-535-3449 이다.

선플문화운동, 중국에서 '한류 3.0' 견인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10대 선플 선발대회 우수 선플러 시상식' 개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선플운동이 중국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인터넷 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국(대표 저우위보)은 지난 15일 중국 북경 인민망 본사에서 '중국 10대 선플 선발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건전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선플햇빛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의 '중국 인민망 TV 선플 강연'을 계기로 인민망에서 시작한 '중국 10대 선플 선발대회'는 네티즌들에게 선플 달기를 권장하고 악플과 유언비어를 추방하여 밝고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인민망이 개설한 '10대 선플 선발대회' 홈페이지에는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3만 1천 건의 선플운동에 대한 사연이 올라왔으며, 이 글에 대해 43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중국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중국내 주요 파워블로거와 미디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10명의 우수 선플러가 선정되었다.

저우위보 인민망 한국지국 대표는 "중국에서 선플운동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으로 '한류3.0' 시대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고, 강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뉴스대변인 겸 인터넷뉴스정보홍보국 국장은 "선플은 작지만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 더 많은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선플 운동에 참여하여 선한 행동을 실천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선플햇빛성명'은 인민망을 비롯해 CCTV, 광명망, CNR, 중국망, CNI, 중국청년망, 중국경제망, 중국신문망, 중국일보망, 중국대만망, 중국청년보망, 소후, 망이, 봉황망, 검찰일보, 북경일보, 하북일보, 내몽고일보, 천진일보, 산서일보, 중경일보, 심천특구보, 소상신보, 장강상보 등 25개 중국 주요 매체들이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7대 항목을 선정하고 대외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선플운동이 중국으로까지 전파되어 인터넷 정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 이를 계기로 선플운동 확산을 위해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교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선플운동은 유명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 악플로 인해 생명을 버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의 개선을 위해 출발한 것으로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악플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인식하게 함은 물론 사이버 언어문화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가꾸어 나가자는 취지의 운동으로, 2007년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어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에게 선플달기 과제를 내어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 6천여 개의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울산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선플운동을 도입한 이후 64%나 감소하여 선플운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선플운동본부, 한중 누리꾼, 효 실천 선플캠페인

13억 중국인들 감동시킨 손수레 효녀 '씨에슈화 모녀 초청강연' 개최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가 참빛그룹(회장 이대봉, 서울예술학원 이사장)의 후원으로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과 함께 13억 중국인들을 감동시킨 손수레 효녀 '씨에슈화 모녀 초청 강연'을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라움아트센터와 10시 30분 서울예술고등학교 연주홀에서 개최하였다.

63세 딸이 구순의 노모를 위해 인력거로 중국 전역을 여행하며 세계인을 감동시킨 씨에슈화 모녀의 사연은 국내에도 알려져 한국의 많은 누리꾼들이 격려의 선플을 달았다.

이번 손수레 효녀 초청강연을 계기로 선플운동본부와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은 중국 33개 성과 한국 17개 시도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효자효녀 선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대회는 누리꾼들과 전문심사위원단의 참여로 선발되며, 선발된 '효자효녀에게는 상대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며, 선플운동을 통한 '효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플운동본부가 참빛그룹의 후원으로, 씨에슈화 모녀를 초청했다.

선플운동본부와 선플재단은 지난주 9월 18일 한중 누리꾼 간 선플을 통한 민간친선 우의증진을 위한 '한중청년선플사이버 공공외교단'을 발족하였으며, 2013년 쓰촨성 대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올린 추모의 댓글을 모아 제작한 '선플 추모집'과 '청소년 문화센터 재건 기금'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또, 한국 누리꾼들의 선플을 받은 중국에서도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이 개설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 홈페이지'를 통해 8만여명의 중국 누리꾼들이 추모의 뜻을 전해 오는 등 선플운동을 통한 '한중 민간 공공외교' 활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기업인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동권 선플포럼 회장은 "효를 실천하고 있는 씨에슈화씨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누리꾼들이 좋은 문화를 서로 배우고 선플운동에 참여하여 한국과 중국이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이사장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은 "씨에슈화씨의 효행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효실천 교육'을 통해 참된 인성을 갖춘 인재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부 사이버 공공 외교사절 직을 맡고 있는 민병철 교수는 "손수레 효녀 씨에슈화 모녀 초청행사에서 시작된 '한중 효자효녀 선발대회'는 양국의 아름다운 전통인 '효문화'를 선플운동을 통해 확산시키고 한중 누리꾼들이 미풍양속을 서로 소개하고 응원하여 한중 민간 친선 우의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응태 기자

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윤리 강화 … 2014 인터넷 윤리대전 시상식 개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실시에 최선의 노력"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사물인터넷 시대 안전하고 유익한 인터넷이용 최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11월 26일 11시 서초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 확산 및 양질의 콘텐츠발굴을 위하여 진행된 '2014 인터넷 윤리대전'의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과거처럼 사이버공간과 실생활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 질서, 배려, 사랑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인터넷 윤리를 세워가는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원은 앞으로 다가올 사물인터넷 시대에 안전하고 유익한 인간에 기반한 인터넷 공간, 인터넷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세대가 전체인구의 13.5%에 해당하고 특히 청소년들은 99.6%가 디지털네이티브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발명품이 되기도 하지만 필요악이 될 수도 있어 인터넷상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예절이 필수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추진중인 인터넷 윤리교육을 통해 1년에 약 9만 8천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리대전 단체 모습

'2014 인터넷 윤리대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관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를 실시하여 접수된 60초드라마, 인쇄광고, 웹툰, 그림일기/4컷만화, 슬로건의 5개부문에 총 1,789작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총 27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무총리상인 대상에는 60초드라마 부문에서 조기은(숙명여대), 강동식(경기대), 김한나(이화여대)의 '아름다운 인터넷의 시작은 내손으로'가 선정됐고, 최우수상으로 60초드라마 부문에서 최윤정, 이보은의 '아름다운 인터넷의 시작은 따뜻한 첫 순간에서 비롯된다'와 인쇄광고부문 엄태인의 '한 수 한 수 신중하게'가, 웹툰부문에서 사공록의 '아름다운 인터넷의 시작은 배려로부터'가, 4컷만화(초등부)부문에서 최지선의 '60초' 등이 선정됐다.

조응태 기자

공단정문 앞 기념촬영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선플누리단, 언어순화운동 캠페인

노만균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리말 쓰기 운동 적극 동참" 다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청소년수련관 선플누리단 20여명이 21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녹양동 소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고유언어인 한글을 공직자들로부터 본을 보이고,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뜻을 알리고자 언어순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노만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캠페인활동을 하는 선플누리단 청소년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하고 우리말 쓰기 운동에 우리 공직자들부터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소년수련관 선플누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선플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청소년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인 『언어지킴이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언어생활 확립과 언어문화 개선활동을 위하여 지난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선플달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행사시 부스운영 또는 거리캠페인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 쓰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노만균 이사장 아름다운 우리말 쓰기운동 참여할 것을 서명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윤태 기자

대전교육청, 언어문화 개선위한 '100만 선플자원봉사단' 출범식

설동호 교육감 "아름다운 댓글로 상대방 존중"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0만 선플자원봉사단 출범식'을 대전 지족중학교 강당에서 민병주 국회의원과 600여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선플운동본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지난 5월 31일,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출범식'을 시작으로, 광주 정광고등학교, 서울 강남 대명중학교, 대구 동도중학교 출범식에 이어 대전 지족중학교에서도 출범식을 갖게됐다.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대전 출범식에 참석한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게 사이버상에서 언어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댓글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씨를 갖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민병주 국회의원은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인 선플운동의 확산해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응원과 배려의 선플문화를 확산시켜 악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에 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플운동은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악플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인식하게 함은 물론 사이버 언어문화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가꾸어 나가자는 취지의 운동으로, 2007년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어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에게 선플달기 과제를 내어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현재 6천여 개의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운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 선플달기운동을 확산시켜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 사용을 습관화하고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민병주 국회의원,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건국대 교수),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선플문화 확산을 위한 네티즌 공모전 수상자는?

대상에 표어 이현준, 포스터 진혜원, 사진부문 이서진, 위문편지 이지예, 다큐소감 남혜린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가 언어문화 개선과 선플문화 확산을 위한 '네티즌(누리꾼) 공모전'의 표어, 수필, UCC, 포스터(만화), 사진 등 자유형식 및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에게 편지쓰기 공모전'을 지난 9월 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했다.

선플운동본부는 수상자를 12월 13일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20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1층 계단강의실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2014 선플표어 공모전 수상자는 ▲표어부문- 대상 충남고등학교의 이현준, 최우수상 표예슬, 김기태 ▲선플 다큐 소감 부문- 한광여자고등학교의 남혜린 ▲선플사진공모전 부문- 대상 포항제철동초등학교 이서진, 최우수상 모현초등학교 김철래, 우수상 인천가현중학교 김상현 ▲선플수필공모전 부문- 모현초등학교 송영진, 최우수상 포항제철동초등학교 남예령, 정광고등학교 박민우 ▲선플위문편지공모전 부문- 하남중학교 이지예 ▲선플포스터공모전 부문- 대상 안산공업고등학교 진혜원, 최우수상 안산공업고등학교 이한별, 인천가현중학교 김미성 이다.

대상 수상자의 작품은 아래와 같다.

선플표어 공모전 대상, 이현준 "내가 쓴 선플 인터넷의 구명조끼"

선플포스터공모전 대상 안산공업고등학교 진혜원(내가 쓴 선플 나에게로 돌아온다)

선플사진공모전 대상 포항제철동초등학교 이서진

선플위문편지공모전 대상 하남중학교 이지예

선플 다큐 소감공모전 대상 한광여자고등학교 남혜린

5개 부문 수상작들을 지면에 게재한다.

이민우 기자

향기로운 꽃이 되는 댓글과 칼날이 되는 댓글

선플 수필공모전 대상 / 모현초등학교 송영진

지금 이 시간에도 진심을 담은 댓글이 향기로운 꽃이 되어 모두를 즐겁게 하는 향기를 남기기도 하고 장난으로 시작했던 무심한 댓글이 날이 선 칼날이 되어 주변 모두를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라는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 계셨습니다. 세계최강의 주먹을 가지셨고 세계 챔피언인 만큼 세상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지만 정작 그 분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힌 것은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 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나를 정말 아프게 했던 것은 핵펀치를 가졌던 상대 선수의 강한 펀치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잔인한 말들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천하무적의 선수를 상처입히고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말, 그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말로 입은 상처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SNS가 대부분 사람들의 소통방법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말들은 '댓글'들로 형태를 바꾸고 서로 주고받고 합쳐지며 때론 사람들을 웃게 하고 또 울게 만듭니다.

혹시 글에서도 향기와 악취가 난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혼자서라도 크게 자신이 쓴 글을 읽어보세요.

그 글을 읽을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선플은 우선 나부터 미소 짓게 하고 마치 좋은 향기처럼 멀리멀리 퍼져나가 주변을 행복하게 만든답니다. 혼자서 소곤거리기에도 부끄러운 나쁜 댓글, 즉 악플은 읽는 순간 먼저 내 스스로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악취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골칫거리 문제가 됩니다.

혹시 글에서도 향기와 악취가 난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선플은 좋은향기로 멀리멀리 퍼져나가

선플운동을 하시는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로 전근오시며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던 선플의 의미와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플운동을 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저 악플만 달지 않으면 되지 왜 꼭 선플을 달아야하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기도 했었습니다. 6학년에 올라와서 담임선생님이 되셨기 때문에 거의 1년을 학급 전체가 선플운동을 하며 선플은 그저 악플의 반대말이 아니라 나쁜 범죄이기도 한 악플을 몰아내자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실천운동이라는 것과 그런 선플 실천운동을 통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악플들이 사이버 소통의 공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은 1년 동안 클래스팅을 통해 학급 일에서부터 개인적인 일까지 서로 소통하며 게시 글을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응원과 기쁨의 힘으로 스스로가 원래 자신보다 더 근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용기가 생겼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서로가 답을 내어주고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에 함께 라는 공동체의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이나 사이버공간에서 정말 힘들고 지쳐 공감해줄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플을 기다릴 것입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도 선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오늘이 지나면 늦을 수도 있는 선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플의 힘은 기쁠 때보다 슬프고 힘든 일에서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당신은 보이지 않는 꽃과 칼을 양 손에 다 들고 있습니다.

선플의 상징인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해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내 글들이 주변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태양처럼 따뜻한 위로와 향기로운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폭력, 선플에서 희망을 보다'

선플 다큐소감공모전 대상 / 한광여자고등학교 남혜린

21세기 문명의 발달로 길거리 어디서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서로 의견을 달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상처주는 악플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악플은 악성댓글의 줄임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데 일조합니다.

악플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故최진실씨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가수 유니씨가 악성댓글로 인해 심적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하였고 한 때 많은 인기를 끌던 탤런트 정다빈씨도 성형수술설과 여러 루머로 인한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닌 일반인의 사례로는 40kg을 감량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대전여고의 이모양이 특정연예인과 찍은 사진으로 인해 그 팬들에게 악플로 시달리게 되자 자살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고통받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악으로 자리잡은 악플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악플은 사이버 세상을 떠나 현실에서도 큰 문제로 제기 되었는데요. 바로 학교폭력의 일부인 언어폭력으로 악플이 변질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력이 대표적이였다면 요새는 언어폭력이 대표적 폭력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비방하고 인터넷에 피해학생에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언어폭력이 심각해졌습니다. 피해학생은 계속하여 듣는 욕설과 비방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끝내 자살까지 선택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를 통해 선플에 필요한 것 배울 기회 되어 많은 사람이 선플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회로

그런점에서 다큐 '언어폭력, 선플에서 희망을 보다'에선 이런 악플의 폐해와 선플을 달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플이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악플의 반대의미인 선의적인 댓글이라는 의미와 칭찬, 격려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달아주는 댓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 본 경험은 많지만 선플을 달아본 경험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선플을 다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고 범주가 좁은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선플의 일종이니까요.

선플을 달아야하는 이유로는 첫째, 선플에는 악플과 언어폭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플달기 운동을 전후하여 울산지역 학생들의 언어폭력 피해율이 40.7%(12년 2월)에서 5.6%(12년 10월), 2.0%(13년 2월)로 격감하는 등, 선플운동이 언어폭력 피해감소에도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둘째, 악플과 비속어를 했을 경우 가장 먼저 보고 듣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다큐 내용 중 초등학교 아이들이 야채에 선플과 악플을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선플을 했던 야채는 싱싱하고 거의 썩지 않은 반면 악플을 달았던 야채는 악취가 나고 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물도 이러한데 사람은 어떨까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선플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보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플을 달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봉사를 해야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따뜻한 선플 한마디도 어렵고 외로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번 다큐를 통해 선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청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선플을 달아 자신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응원하는 국군장병님 안녕하세요?"

선플 위문편지공모전 대상 / 하남중학교 이지예

국군장병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중학교 재학생 2학년 1반 이지예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가 오고 11월이 다가오니 겨울의 쌀쌀함이 느껴지면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와 계절은 변하지만, 변치 않고 언제나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며 열심히 일해주시는 국군장병님이 계셔서 나라는 점점 따듯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군장병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겐 두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군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전 세계를 평화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군인과 결혼 하는 것이 꿈 이었던 것만큼 용맹한 군인의 모습은 언제나 멋있게만 느껴집니다. 국방목표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세계평화에 기여 하는 것임을 알게 된 후 저는 다른 군인들처럼 나라에 충성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러한 계기들로 부터 여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군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군인들의 일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아픈 곳이 군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군대생활을 체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국군장병님들의 훈련의 고난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훈련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군인들이 가끔 뉴스에 나올 때, 마음이 아팠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얼른 평화로운 세계가 되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쟁으로 인해 전사하시는 분이 단한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평화롭고 북한과 통일 된다면 성취감과 기쁨 가득 국군장병이 계셔서 우리나라 미래가 있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저에겐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곧 군대를 가게 될 텐데, 오빠의 입대가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면 자주 볼 수 없어 많은 빈자리가 느껴지겠지만 오빠가 군대를 가서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될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군대를 다녀오고 직접 느낀 감정을 말해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님들의 의지를 본받아 군대를 꼭 가고 싶습니다. 정말 군대가 아니더라도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학생의 신분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도 해봤는데, 미래의 세계평화가 현실화 되는 모습을 꿈꾸며 다른 나라들과 북한에 대해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까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할 것입니다.

국군장병님! 다른 것 말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힘써주세요.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세계가 평화롭고 북한과의 통일이 된다면 저의 꿈은 하나 사라질 것 이지만, 꿈을 이루는 것 보다 더한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을 알고 이해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이편지가 전해지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설레 일 것 같습니다. 저와 친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꿈과 미래를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국군장병님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국군 장병님이 계셔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충성! 2014.10.27 이지예 올림

선플 사진공모전 대상 포항제철동초등학교 이서진

아름다운 선플문화에 동참하세요!

작품감상 : 선플문화 확산은 남녀노소가 따로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의 아름다운 댓글문화를 지키고 발전하기위해 학생들이 어르신에게 선플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내가 쓴 선플 나에게로 돌아온다

선플 포스터공모전 대상 / 안산공업고등학교 진혜원

김해 능동초등학교 박현성 교사 선플지도자대상 수상

'2014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 건국대서 열려

(사)선플국민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가 12월 21일(토)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개최한 '2014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에서 능동초등학교 박현성 교사가 선플지도자대상(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능동초등학교는 2011년에 이어 2014년 선플우수학교로 선정이 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선플정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가 후원한 행사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플지도자대상을 수상한 박현성 교사가 능동초 선플활동 우수사례 발표를 하였다.

능동초는 선플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전교생이 선플플래쉬몹 공연을 하기 위하여 4월 선플누리단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선플플래쉬몹을 만들었고, 그 선플 플래쉬몹을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매일 교내 방송을 통해 학급에 보여주어, 학교 개교기념일 행상에서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선플플래쉬몹 공연을 하면서 선플의 맘을 다졌다.

다음으로 선플누리단 학생들이 선플 문화를 확산하자는 다양한 표어, 포스터를 만들고, 선플송을 통해 선플콘서트를 교내외에서 50회 이상 진행하였다. 37학급 전 교실을 돌며 선플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육아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파트 경로당 등의 교육소외계층을 찾아서도 선플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 선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각 학년 창체 시간에 학년별로 선플의 어깨띠를 하고, 현수막을 들고 학교 주변에서 선플 행진을 하였다. 또한 김해시 평생학습축제, 김해시 아나바다 장터, 김해 아울렛 축제 등 김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선플 콘서트를 통해 선플 달기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사실 선플 달기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글을 읽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는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능동초는 학년의 수준에 맞게 고학년은 실제 인터넷에서의 선플 달기도 하였지만, 어린 저학년의 경우 학급에서 친구에게 먼저 칭찬을 하는 것,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먼저 사과를 하는 것, 인터넷 언어가 아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도 선플의 맘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하고 각 학년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선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능동초는 2014년 학교폭력 제로를 달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언어사용이 많이 순화되었다.

선플 누리단 회장 박수현 학생은 "친구를 칭찬해 주고, 친구를 격려해주기 위하여 친구의 좋은 모습을 찾다 보니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 하루 하루가 행복하다"고 하였다.

학교 토론왕 최지민 학생은 "선플을 달아 준다고 하여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아무 생각없이 적어 주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지만 적어도 그 나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해 줄 수 있어 역지사지의 맘이 길러졌다"고 하였다.

박현성 교사는 수상 소감에서 "능동초는 최인영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조하셨다. 이에 인성교육의 실천으로 선플누리단을 운영하였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되어 교사로서 큰 보람과 함께 더 큰 책무성을 느낀다"고 하였다.

박교사는 "요즘 국회에서 선플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등 바른 언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데,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선플을 통한 바른 언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선플의 효과에 대해 최근 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능동초는 선플 운동을 확산하다 보니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욕설이나 폭언 등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 선생님들도 학생 생활 지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다른 시도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선플 운동을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경남은 그런 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경남에도 선플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병철 선플 이사장님이 대한민국 선플전도사 역할을 하신 것을 본받아 경남에서 선플전도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응태 기자

선플운동본부와 관계자, 수상자들이 2014 선플활동 결과보고 대회 및 시상식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다.

밝은 얼굴로 선플누리단 교내 캠페인 등 선플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칼 | 럼 | 반재원 / 훈민정음 연구소장, 국학박사

'훈민정음' 집단 창제? or 세종 단독 창제?

훈민정음의 창제 이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볼 때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 개인이 일관성 있게 추진한 단독 작품임을 느끼게 한다. 세종 때 만든 해시계를 비롯한 30여종의 발명품에는 하나같이 그것을 제작한 실무자의 이름과 연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훈민정음만 유일하게 실무자의 이름이 없이 세종 혼자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이 눈병이 나서 요양을 떠나면서도 훈민정음 자료를 챙겨 떠난 사실을 보더라도 얼마나 한글 창제에 몰두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연구물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애착이다. 책이나 논문을 써본 사람이라면 그 심정을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훈민정음 창제가 세종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바로 〈세종실록〉 103권과 〈훈민정음 해례본〉 65쪽의 정인지 서문에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했다(자방고전 字倣古篆)'라는 문구 때문이다.

그동안 '고전'을 한자의 옛 서체나 범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필자는 여기에 나오는 '전문篆文'이나 '고전古篆'이나 최만리가 말한 '전자篆字'가 모두 단군 때의 '가림토'를 일컫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토착吐着'이라는 문구 때문이다.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의 유사에 "세종이 방언이 문자와 서로 통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변음變音과 토착吐着을 여러 대군에게 풀어보게 하였으나 아무도 풀지 못하였다. 그래서 출가한 정의공주에게 보냈는데 곧 풀어 바쳤다. 이에 세종이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하고 큰 상을 내렸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변음'과 '토착'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변음은 정음과 반대되는 말로 사투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토착은 무엇일까? 그 당시 대군들은 아무도 '토착'을 풀지 못하였는데 오직 공주만 홀로 '토착'을 풀어 바쳤다는 내용으로 보아 '단군때의 가림토'가 그때까지 여인네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착吐着의 '토吐'는 분명 가림토 加臨吐의 '토吐'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의공주로부터 가림다문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토착 즉 '가림토'를 '전자篆字'로 보아 해례본에도 옛 전자를 모방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단군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3세 가륵 단군때 삼랑 을보륵이 만든 가림토문을 보면 가운데 소리 11자는 훈민정음 가운데소리 11자와 똑같다. 따라서 세종은 단군때의 가림토를 많이 참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에는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 없이 자연에서 이루었다(무소조술無所祖述 성어자연成於自然.)'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앞의 '자방고전'의 뜻과 서로 배치되는 말이다. 이에 필자는 앞의 '자방고전'이라는 뜻은 글자의 꼴을 가림토문에서 많이 취한 것이라는 의미로 보며 '무소조술 성어자연'이라는 문구는 글자의 모양 이외에 한글의 천 인 지의 원리, 초 중 종성의 조합방법, 발성기관을 형상화한 것, 글자의 가획방법, 그리고 동양천문도의 28별자리에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만든 것 등은 모두 세종의 독창적인 이론이라는 뜻으로 풀어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방고전'이라는 문구 하나로 인하여 세종의 창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자방고전'이라는 말은 글자꼴은 가림토의 맥을 이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말이며 '무소조술 성어자연'이라는 말은 글자꼴 외의 창제원리는 세종의 독창적인 연구물이었다고 풀이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창제원리 전체를 들여다보면 서로 혼란을 일으킬 문구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도 훈민정음 전체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하나의 문구 해석에만 집착하다보니 일반인들에게 자꾸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과학적"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시험에 세계 61개국에서 16만여 명 지원'

568돌 한글날 경축식이 정홍원 국무총리 등 관계자들과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9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훈민정음 서문 봉독, 유공자 포상과 정홍원 총리의 축사에 이어 경축공연으로 이어졌다.

568돌 한글날 기념식

축사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은 훈민정음 봉독에 앞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을 때, 동아시아에는 민족마다 거란문자, 여진문자, 몽골문자, 위구르문자, 베트남 문자, 티베트문자 등 제나라 문자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오늘 그 문자들은 모두 죽었다. 중국한자도 중국 본토에서부터 간체자가 되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한글은 한류문화로 한글문화로 세계로 넘쳐흐르고 있다."면서 "지금 세계 300여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세계 2천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 세계의 문자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유공자 표창 후, 경축사에서 "오늘은 겨레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인류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만드신지 568돌이 되는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면서 "한글은 우리에게 큰 자랑이고 자부심이다.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누구나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어 "한글에 대한 세계의 열기도 매우 높아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시험에 세계 61개국에서 16만 7천명이 지원했으며 한글 관련 상품의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교사와 교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브라질 월드컵 때는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 학생들이 우리 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러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더욱 북돋우기 위해 한글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산의 중심으로 만들고,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글과 우리말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의 언어문화가 갈수록 속되고 거칠어진다면 문화융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세계적인 '한국어 배우기'에 대한 자긍심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한글날 경축사에서 우리의 언어문화를 바로세우기 위해 '범국민적인 언어순화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작년 연말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도 출범했음을 상기하고 "다음달부터는 '바른 언어, 고운 언어, 품격 있는 언어의 생활화'를 목표로 2단계 언어문화개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생활화를 통해 우리 언어가 더욱 아름답게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공자 포상 대상자〉

금관문화훈장 : 고 '호머 헐버트'(미국, 언어학자, 사학자)

보관문화훈장 : 홍윤표(국립 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위원장)

문화포장 : 이 스베틀라나(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한국교육원 한국어교사)

문화포장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첨단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문화포장 : 성기영(한국방송 아나운서실, 전 한국어연구부장)

대통령표창 : 허경무(사단법인 한국서체연구회 이사장)

대통령표창 : 미리암 뢰벤슈타이노바(체고슬로바키아, 찰스대학교 한국학과 학과장)

국무총리표창 : 왕단(중국, 베이징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부 교수) 은동기 기자

한국어 사용자 수 세계 18위에서 13위로 상향

세종로 일대, 한글 마루지 사업으로 조성

10월 9일 568돌 한글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는 '휘호써주기'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장은 어린이들과 어른들로 넘쳐났다. 한글의 우수함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한류열기에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앞서 하루전인 8일에는 한글박물관도 개관하는 등 대소 행사가 줄을 이었다.

세계의 각종 언어 관련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세계적 언어정보 제공사이트인 '에스놀로그'(Ethnologue,http://www.ethnologe.com)는 5천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의 언어 순위에서 한글을 종전 18위에서 13위로 상향 조정했다.

비교하자면, 51개 국가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14위)보다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시험에 전세계 61개 국가에서 16만여 명이 응시할 정도로 한글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한글날 '휘호쓰기' 행사 모습

한글, 세상의 아름다움 - 세종문화회관

'한글 마루지 조성 사업'이란?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서울과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글학회, 세종대왕 생가터, 주시경 집터, 광화문광장 등 한글 관련 시설이 풍부한 세종대로 일대를 한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 중심지로 조성된 사업을 말한다.

'한글 글자마당'

첫소리 19자, 가운뎃 소리 21자, 끝소리 27자로 조합 가능한 11,172자를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한국거주외국인, 새터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11,172명이 참여, 각각 한 글자씩 직접 쓴 글씨를 돌에 새겼다.

은동기 기자

꼼꼼히 따져봐라
안전 지향 라식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칼 럼 | 이충재 / 시인, 칼럼니스트

물질의 우상 앞에서 머물지 말고 인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자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위의 청유형 문장은 11월 1일 모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의 머리말이다. 지난 29일 오전 "오늘 집을 나가기로 한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아 이상하다"는 신고가 동대문경찰서 형사팀에 접수됐다. 출동한 형사들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주택 1층에 들어갔을 땐 세입자 최 모(68)씨는 목을 매 숨져 있었다.

시신을 수습하던 경찰은 집안 곳곳에서 돈이 든 봉투들을 발견했다. 현관 옆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전기요금이, 싱크대 옆에는 수도요금 고지서와 요금 만큼의 돈이 함께 봉투에 담겨 있었다. 다른 방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에는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라는 글귀가 겉면에 적혀 있었다.

그 안엔 10만원이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은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올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하라며 돈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례비로 추정되는 100여만 원이 담긴 봉투도 발견됐다. 최 씨가 남긴 돈은 총 176만원이었다. 대부분 빳빳한 신권이었다.

일전에도 돈 봉투(월세 값과 공과금)을 남기고, 인삿말과 함께 장애를 앓고 있던 딸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의 기사를 읽은 적 있다. 이 두 기사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남기고 간, 그 분들의 삶이 갑자기 그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시대 중심을 '한 움큼의' 가치행복 추구라는 감성을 가지고살아가는 시인의 마음을 울리는 어쩔 수 없는 상념의 뜨락이 아닐까.

수 개 월 전 문제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채 한반도 전역을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분노의 독안에 가두어 놓은 사건이 있다. 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꽃다운 청소년들과 지인들의 목숨을 수장 시킨 사건이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유람선 운영사 회장인 유병언이 자두밭에서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그가 남긴 가방에서 발견된 귀중품과 현금다발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빼 돌린 알 수 없는 액수의 검은 돈의 흔적을 떠 오릴 때마다, 비록 스스로 죽음을 택한 아픔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인생이 의미를 더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공과금과 함께 자신의 장례비,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을 위한 국밥 값을 남기고 떠난 68세의 독거노인과 비교하면, 종교공동체란 미명아래 모든 신도들의 물질과 영혼을 갈취하여 호사를 누리다가 비명에 간 그의 최후 소지품에서 발견된 귀중품과 현금다발은 천민자본의 유산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대 부촌민들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듯한 슬픈 현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과 절망에 빠져 지낼 수 없는 것은 아름다운 죽음의 흔적을 남기고 간 독거노인과 같은 생애가 있기 때문이다. 68세의 독거노인이 홀로 노모를 모시다가 지난 3월 노모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드리고 난 이후 생애를 마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 자신의 뒷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을 보니, 생애는 저렇듯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남기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정답을 세인들에게 남기고 간 몸소 행한 교훈이라고 본다.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학문이나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몸소 행함으로 남길 때 더욱 값이 있는 것이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그들만의 생애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마당에 뭐라고 당위성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관이라도 볼 때, 배울 것은 충분히 배워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갈 교훈으로 섬기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간접적으로 맞닥뜨리며 살아간다. 그들 사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애의 가치가 가감 없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추하다는 시비를 낳기에 족하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편지와 함께 수고하는 이들을 향한 수고료 명목의 봉투를 남기고 떠날 수 있을 만큼의 배려가 몸에 배인 생애를 살다가 간 독거노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반추되기 때문이다. 현대 문명의 무분별한 발전을 비판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기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기계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인간, 물질을 생계 필요 충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인간이 바로 그 물질을 우상시하는 시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진단하는 것을 본다.

아마도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질서를 잃은 채, 유리방황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21세기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사회를 이대로 방치시킬 것인가? 모든 교육과 종교 그리고 문화와 정치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인성과 인간관계를 잇는 신뢰를 망가뜨리는 주범으로서 그 악한 습성을 퇴출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권력과 명예 그리고 물질을 추구한다면 지구는 아수라장 그 현장을 결코 모면치는 못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도움이들을 향한 독거노인의 필사체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아마도 마음의 샘과 같이 오래도록 가슴에 새겨두고 때때로 배려 깊은 한 사람의 죽음을 품어 올리면서 살아야 할 듯하다. 독거노인의 명복과 함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영혼의 순결, 물질 앞에서 좀 더 절제하고 배려할 뿐 아니라 겸손할 줄 아는 삶이기를 바란다.

칼 럼 | 주철민 /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교수

21세기 게임이 만들어내는 폭력적 대중문화의 위험성

오늘날 게임은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대표적 매체이다. 게임기나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즐기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은 극히 소수이다. 규칙에 따른 반복적 놀이로서 게임은 단순하게 대중을 즐겁게 하는 스펙터클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토리텔링과 스펙터클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 문화는 오늘날 두 가지 도덕적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하나는 게임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대변하는 순기능성이다. 게임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게임이 창조하는 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표현하는 역기능성이다. 이 게임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게임 문화의 역기능성이다. 그 역기능은 게임의 중독성 때문에 발생한다. 게임 중독으로 게임의 유저는 일반 사람들과 분리된 폐쇄된 삶을 살아간다. 그 삶의 공간은 특히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하나는 게임 유저가 일반 사회와 단절된 삶을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점은 게임 유저가 폭력적 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사회에 발산한다는데 있다.

폐쇄된 게임의 공간 속에서 길러진 게임 유저의 폭력성은 단순히 한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인류 평화를 자칫 위협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예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콜 오브 듀티나 메달 오브 아너와 같은 일인칭 슈팅 게임이다. 이 게임들은 21세기 초 미국 문화의 대표적 화두를 전달한다. 20세기와 다르게 미국사회는 미국이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치 독일을 패망시켜, 인류의 자유와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구세주임을 강조하는데 열광하고 있다. 워싱턴 디시에 2차 대전 추모비를 건립하고, 2차 대전을 소재로 한 톰. 브로커의 《위대한 세대》와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하였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밴드 오브 브라더즈'를 뒤이어 콜 오브 듀티와 메달 오브 아너와 같은 게임들도 미국이 세계의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다.

콜 오브 듀티와 같은 게임들의 의미전달 방법은 영화 보다 더욱 직설적이고, 일방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영화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오버랩시키는 방법과 같은 이미지의 다양한 재현방식을 통해 역사를 전달한다. 그 해석의 다양성을 허용한다. 게임은 그 자체 내에 이와 같은 의미전달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유저와 기계간의 통신만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통신은 운동, 정서, 물질적 결과를 포함한다. 게임의 참여적 재현이다. 그 재현과정에서 유저에게 전달하는 게임의 메시지는 영화보다 일방적이다. 콜 오브 듀티 2, 빅 레드 원 게임의 유저와 기계간의 통신은 기본적으로 유저의 슈팅행위이다. 총을 쏘아 죽이는 유저의 반복적 활동은 일방적으로 유저에게 인간의 자유와 평화를 저해하는 나치 독일군을 제거한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느끼도록 강요한다. 게임과정에서 장군이나 지휘관이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활약하는 일인칭 슈터인 유저는 자신을 전쟁의 영웅과 동일시한다. 그 동일시는 유저를 평상시에도 영웅과 같이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낳는다.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실제 전투상황과 게임의 가상 상황은 전혀 다르다. 유저는 게임 속에서 오직 슈팅의 정확성과 숙달만이 전쟁에 승리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술은 2차 세계대전 뿐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전에서도 필요하지만 승리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 전쟁 승리의 조건은 무기의 좋고 나쁨이 아니다. 인간적 요소와 연결된 복합적 상황이 작용한다. 능력 있는 어느 한 인간,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세계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수많은 인류의 목숨을 구원하는 인간적 스토리를 담은 게임이 필요하다.

평내호평 | 칼 럼 | 반윤희 / 수필가 · 시인 · 서양화가

꿈나무들에게 희망주는 문화이벤트

하루가 다르게 가을은 깊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무덥던 날도, 폭우로 가슴을 태우던 날도 소리 없이 흘러서, 앞산 백봉산에도, 뒷산 천마산에도 정상에서부터 곱게 가을 물이 들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상봉역에서부터 자전거 행렬이 줄을 잇는다. 어디로들 그렇게나 달리고 싶은 걸까!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50대에 중랑천에서, 뚝섬으로, 여의도로 자전거 길을 숨 가쁘게 달리 던 그 때가 마냥 그리워진다.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서 이제 춘천으로 가는 자전거도로에는 행렬이 줄을 잇는다.

이곳 호평으로 이사를 오던 해에 위험하다며, 아들은 엄마가 자전거를 탈까봐서 걱정이 되어서, 내 자전거를 몰래 누굴 줘 버려 섭섭했던 적이 있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가을 생각이 꼬리를 문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수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빠른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뛰고 달리고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편집인으로 되어있는, "문학과 현실"이라는 가을호 책을 기다리는 중에 책은 오지 않고, 젊은 문학사사장의 부고가 날아 와서 아연실색(啞然失色)을 한 일이 있다.

오늘 절망하는 생각 속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희망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떠오르는 것은 이 또한 무슨 마음일까!

인간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어우러질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며, 또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한다.

십 년 전 남양주 호평동 금강아파트 이곳으로 이사를 온 이후, 우연하게 동대표로 뽑히는 바람에, 관찰을 하던 바, 아이들이 유난히 많은 것을 보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대표회의에서 이년 여 설득 끝에 그림대회를 열 수 있었다.

올해로 6회째 대회를 열었으며, 남양주의 중요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대성황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세종문화회관, 서울신문사, 등 여러 전시관에서 전시했던 작품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유화그림전시회를 아파트 관리실 옆 대강당에서 열었던 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작은 힘이나마 주민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었던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평내동 문화센터에서 수필창작 강좌를 맡고 있는 관계로, 평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바, 2014년 예술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전통문화예술과 함께하는, 1부 평내 슬로우 소풍9경 길에 숨겨둔 보물찾기와, 2부 평내동 공원에서는 가족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렸고, 3부 전통문화예술 공연과 보물찾기 시상식이 있었다.

이후, 주민들과의 막걸리 파티와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대성황을 이룬 주민화합의 멋진 가을날을 장식하고 주민들의 함성이 백봉산을 높이 들어 올렸다.

백일장과 사생의 심사위원장을 하면서, 그 동안 살아 온 날들의 노력의 소산을 발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더욱 열심히 봉사하며, 함께 내일을 위하여 사과나무를 함께 심어 나가리라 다짐을 하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사 설

인성이 경제다

어느 식당에서 한 어린아이가 뛰어 다니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자신을 말리는 종업원에게 욕을 해댔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있던 아이의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만약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쉽사리 짐작이 간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다. 이 아이에게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점수 위주의 교육만을 강요한다면 이 아이는 나중에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아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는가 하면, 승무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여객기를 회항시킨 사건 그리고 일류기업에 근무하는 고학력 출신의 직원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제품의 핵심 설계도를 빼돌려 해외 경쟁업체에 억대의 금품을 받고 팔아 넘겼다는 기사 등은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을 등한시한 데 따른 큰 사회적 비용일 것이다.

한 경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1년간의 갈등비용이 국가의 1년 예산에 육박하는 3백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놀라운 수치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자신이 속한 단체 내에서도 비방하며 타협을 외면한 채 투쟁만 일삼는 것은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 지난 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출 상위 국내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성과 도덕성을 우선 가치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야 기업들은 기존의 직무능력위주의 인재 선발에서 벗어나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재의 등용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교육의 종착지가 입시로 귀결되는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 현재의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영어 출제에서 의사소통 문제 출제 비율을 높여야만 비로소 대한민국 학생들의 실용영어 구사가 가능 할 수 있듯이 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인성교육 방안은 인성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춘 수능문제 출제와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인성과 사회성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악플 추방을 위한 선플달기운동을 전개한 이후 학교폭력이 50% 이상이 감소되었다는 울산교육청의 발표는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타인에 대한 선한 언어 습관이 욕설과 말다툼을 줄이고 학교폭력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은 좋은 사례이다. 막대한 사회 갈등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인성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새해부터는 인성교육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

칼날이 되는 언어, 사랑이 되는 언어

언론인이면서 추리작가인 이상우씨가 쓴 '도둑질에도 철학이 있다' 책에는 세월을 뛰어넘어도 리더의 자질은 창의적인 포용력임을 알 수가 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다. 이상우씨의 책 속에 담긴 세종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세종 10년 9월 27일자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형조에서 아뢰기를 진주 사람 김화는 제 아비를 죽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능지처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세종 임금이 탄식하기를

- 계집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것은 혹 있는 일이지만, 이제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내가 덕이 없는 까닭이다.

세종 임금은 백성의 강상을 범한 극악한 살부사건을 자신의 잘못인 양 탄식하고 반성한다.

오늘날 우리의 최고 권력자는 국민의 잘못에 대해 과연 어떻게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자책하는 지도자가 있을까?

이 사건으로 세종 임금은 크게 충격을 받고 근본적 재발 방지책에 몰두한다. 원인을 캐던 임금은 백성의 도덕 교육이 부실한 데서 온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백성들을 교육시키려면 도덕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6년 뒤 범국민용 교과서로 충신, 효자, 열부 이야기를 모아〈삼강행실〉이라는 책을 편찬케 했다. 이 책은 범국민 도덕 재무장 교과서로 직제학 설순이 주도하여 편찬 간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이 소위 진서라는 한문을 몰라 익히고 배울 수가 없었다. 이를 답답하게 생각한 세종 임금이 어느 날 무릎을 탁 쳤다.

"옳지. 한자를 모르는 백성도 알아보게 그림을 그려 넣자."

그렇게 해서 당대 제일의 화가인 안견 등을 시켜〈삼강행실〉에 그림을 곁들이게 했다. 안견은 유명한 〈몽유도원도〉를 그린 화가이다.

그림 곁들인 〈삼강행실도〉, 말하자면 "만화로 보는 도덕책" 이었다.

그러나 이 책 또한 완전하지 못했다. 오디오가 없는 영화 같았다.

'백성들이 쉽게 배워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이 없을까?'

이 작업에 골몰한 세종대왕은 마침내 한글을 창제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한글은 단순히 글이 필요해서라는 기술적인 부분의 수요가 아니라 포용의 리더십이 담긴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결과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고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한글이 인터넷을 거치면서 질서가 파괴되고 존중도 무시되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면서 인성까지 해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말은 세 번을 생각하면서 입 밖으로 나와도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남이 상처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 속에서 말은 한치도 여과없이 속어로 바뀌고 속풀이 수단이 되면서 상대에게 칼날보다 더한 날카로움으로 아픔을 주고 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말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말을 뜻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도 한국인은 한글로 통한다.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 속에 담긴 철학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칼날이 되어 도는 언어가 아닌 사랑을 돌고 돌게 만드는 한글이 되길 바란다.

선플신문 편집인 여영미(시인)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신문 2014년 11월 28일 창간

발행인 · 민병철 편집인 · 여영미 인쇄 · 이철구

발행처 (사)선플운동본부 본사 135-9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역삼동) 유창빌딩 15층

대표전화 02)535-3449 팩스 02)6008-3377

편집국 02)535-3156 E-mail sunfull@bcm.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안녕! 우리말

www.urimal.kr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 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쉬운 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언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부 정책을 알립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품격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키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기성세대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가꿔가는 청소년 언어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대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대화로 희망찬 삶을 만듭니다.

회원단체
• 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 국어운동단체 한국교총
• 한국아나운서협회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한대협) Korean Language Institute Council(KLIC) www.klic.or.kr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CENTER
선플 www.sunplus.or.kr
한글문화연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